

# KÓKKOS 11

2019 NOV VOL. 212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http://www.bible.ac.kr)



예음총학이 주최한 체육대회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펼쳐졌다. 흑팀 (사복, 캠소, 간호)과 백팀 (성서, 영보)의 정예 선수들이 농구경기에서 골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2019 하반기 대학기관인증 현장방문평가

" 소규모 대학으로 경쟁력 있다 . 평가의 환류체계 마련 시급 "



▲ 이홍렬 평가위원장이 상호협의회에서 평가 총평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4일, 25일 이틀간 한국대학평가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이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대학기관인증 현장방문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교수로 구성된 5명의 평가위원이 본교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9월 18일)를 근거로 보고서의 논리적 정합성, 보고서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평가는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학경영 및 이념',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과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이다. 영역은 다시 10개 부분(평가 준거)으로 세분되며, 또 그 아래 30개 지표로 나누어 각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과는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와 '불인증' 판정이 내려진다. 인증결과의 유효기간은 5년간 유지된다.

평가본부는 밀알관 2층 회의실에 자리 잡았고 역사실은 담당자(교수, 교직원)를 불러 면접하는 장소가 되었다. 평가위원들은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일 – 교육과 사업 등 일체의 교육 행위를 아이템마다 면밀히 분석하고 질문하였으며 학교의 주장 혹은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평가위원들의 심기를 다칠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우리 주장을 펴 나가야 했다. 김인화 평가감사실장은 예비평가 결과가 11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고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천마홀에서 현장방문평가를 마친 평가팀과 교직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상호협의회과정'으로 총평 발표회가 있었다.

평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밝고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규모 대학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학교가 실시하는 많은 사업에서 평가의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몇 가지 지표는 대학평균에 못 미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영역별 평가위원들의 커멘트가 이어졌다. '교직원' 영역에서는 교수 및 직원의 의사를 대표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기구 부재가 대학본부와 소통 부족을 넘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학이 설정한 평가 지표에는 정성적 요소가 많아 피 평가자가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변별력 있는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시설과 학생지원' 영역에서는 노후화된 교육, 복지환경과 기숙사 시설 개선안도 제시했다. 지식기술의 사회환원방안과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미니설교

### 열매있는 인생 ( 갈라디아서 6:6-10)

김승호 교수(성서학과)



우리대학 학훈은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십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백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으라"이다. 바울이 7절에서 사용한 단어 '만 훌히'는 '업신여긴다', '조롱하다', '바보스럽게 취급하다'는 뜻인데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는 것, 또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바울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6절, 8절). 서신서에서 바울이 '서로 서로', '함께', '피차'라

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격려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둘째, 인내하면서 심어야 한다(9절). '선'(good)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어려운 환경, 고통, 압력'에도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회 있을 때 심어야 한다(10절). 우리에게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며 제한적(시간과 기회)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 예음총학 , 크리스천 데이 행사 펼쳐

‘문화 개혁’ 6 회 공연 , 영성 회복 등을 ...



▲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살펴 보고 있는 학우 .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2019년도 크리스천 데이 행사가 10월 28일부터 나흘간 이어졌다. 행사는 종교개혁 기념예배와 전공 세미나 및 문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전공별 세미나에서 성서학과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제로 최기현 전도사(컬쳐 미니스토리 문화사역 팀장)의 특강을 들었다. 그는 4년의 학습기간을 통해 자신의 전문화된 사역인과 신학인의 다양화를 전했다.

영보학과는 2학년 학우 중심으로 '영유아 연극놀이의 실제'를 김선(극단 사다리) 대표가 강의하였고 이준희(크는 나무) 대표는 '영유아 신체 활동의 실제'를 3, 4학년 대상으로 특강해 주었다.

컴소학과는 '노 : 답'을 주제로 고준영(07학번) 동문이 소신있게 사는 삶의 방향성 및 목표와 달성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며 특강을 이끌었다.

예음총학은 이번 크리스천 데이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문화인을 초청, 6회 공연을 펼쳤는데 학우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월요일 김상진 & 짐니와 염평안 & 조찬미 & 김종완 팀이 참여했으며 화요일은 유효림과 PK WORSHIP 팀이 무대를 이끌었다. 목요일에는 I HERE WORSHIP 과 김복유 밴드가 영성과 감성을 발화시키며 크리스천 데이의 본질에 대한 공감을 심어주었다.

기념예배는 이정목 목사(43회, 미사목민교회 담임)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제목'(눅 7:11~17)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슬픔에 공감하고 사랑과 전능의 역사를 보였다며 주의 마음을 삶으로 증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대학원 , 종교개혁 기념예배

김경원 목사 , ‘신실한 신양인으로 다시 깨어나라’



▲ 김경원 목사

대학원 종교개혁 기념예배가 28일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김경원 목사(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서현교회 원로목사)가 '너는 이름이 뭐냐?'(창 32:22~30)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주의 창조물인 인간의 이름 속에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 부끄러웠던 행적을 그의 이름을 통해 맹렬히 질타하였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종교개혁의 후예인 그리스도인으로 통렬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신양인으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원별 종교개혁 세미나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원 및 신대원** 김경원 목사가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주소'를 주제로 교회와 목사의 세속화를 개탄하고 상실된 리더쉽 회복과 사명자의 헌신을 강조했다.

**▲ 사회복지대학원** 일립관 507호에서 '노후 생활환경의 혁신 : 제론테크놀로지와 서비스융합 방향'을 주제로 심우정 박사(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가 노후예측과 안전한 기술 환경을 갖춘 생활공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육대학원** 갈멜관 305호에서 '좋은교사, 행복한 교사 되기'를 주제로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가 그의 힘난했던 삶을 들려주며 소명과 헌신에 의한 교사의 정체성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 예음총학 주최, 크리스천 데이 체육대회

한강체육공원, 흑팀(사복, 컴소, 간호) 5:3 승리

크리스천 데이를 맞아 예음총학이 주최한 체육대회가 11월 1일 뚝섬 한강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축구, 발야구 등 8개 종목으로 흑백전을 이어갔는데 진용은 흑팀(사복, 컴소, 간호)과 백팀(성서, 영보)으로 양 팀이 격전을 벌렸다.

경기는 10시 30분 여학생들의 발야구를 신호탄으로 포문을 열었고 농구, 피구, 족구,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가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이날 양 팀은 치열하고 조직적인 응원과 협성을 기울 창공에 발산시키며 열기를 더했다.

중반전 넘기면서 경기 스코어는 3:3으로 팽팽한 상태, 이제 남은 건 축구와 혼성계주 두 종목. 축구만큼은 단일부대인 성서학과가 강해왔었고 계주실력은 양 팀 모두 아직 불확실한 상태였다. 하

지만 외인부대중심의 흑팀이 성서를 1:0으로 눌러버렸고 여세를 몰아 남은 혼성계주마저 거머쥐면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날 흑팀은 축구, 장애물달리기, 피구, 혼성계주, 발야구경기에서 승리를, 백팀은 농구, 족구, 줄다리기였다. 최종 스코어 5:3, 흑팀(사복, 컴소, 간호)의 완승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푸짐한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전동킥보드,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자전거, 연극티켓 등이 추첨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날 최고의 경품은 시가 60여만 원의 전동킥보드, 총학 김대진 학우가 행운의 번호를 외치자 학우들 사이에선 환성이 터져 나왔고 신민철(컴소 3) 학우에게 경품이 안겨졌다.



왕관만들기



백팀 응원메시지



몸풀기 체조



여자 피구



흑팀 응원메시지



백팀 응원



사진촬영



줄다리기



뽐내기

## 컴소 졸업작품전, '사회발전과 IT 복음전도자 될 것'

###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수상작, 고승태홀 전시



▲ 졸업작품전에서 안형모 학우(왼쪽)가 강우정 총장에게 '지문인식 IoT 사물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15 회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졸업작품전」과 「제 14 회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수상작품이 30 일 고승태홀에서 함께 전시되었다.

졸업작품전에는 졸업을 앞둔 4 학년 학우들이 4 년간 배우고 익힌 IT 전공실력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생활 아이디어 및 일상의 편리함 등을 접목한 9 개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졸업전에서 김은택, 김재훈 학우가 출품한 '주말플러스'(주말+)은 사용자의 여행정보 공유와 소통 및 위치 기능을 통해 10 km이내 여행지 음식점을 안내하는 사이트로 시선을 끌었다. 김상빈, 김영찬 학우가 만든 'Growing'(복식편키-복잡한 식물 편하게 키우자)는 식물의 온도, 습도를 체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줘 현대인들이 손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생활아이디어 작품으로 관심을 받았다.

4 학년 학우들은 이번 작품을 출품하면서 "여기에 오기까지 숱한 역경이 많았지만 모든 길 위에 함께 동행해 준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한 알의 밀알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IT 복음전도자로 거듭나겠다"는 소감을 밝혀 주었다.

「제 14 회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9 개(전년도 6 작품) 작품(21 명 참여)이 출품되었다. 대상은 구본익(3) 학우가 만든 '카페코스테스'가 영예를 차지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카페코스테스에서 음료 등의 주문이 가능하다. 최우수상은 임성묵(3) 학우의 '고녀석'과 이경민, 신동규, 신민철(3) 학우가 연합한 '모바일 학생증 시스템'에 기쁨이 돌아갔다. '고녀석'은 우리 학교 강의시간 접속과 SNS 소통 기능개발을, '모바일 학생증 시스템'은 QR 코드 기반의 모바일 학생증 구축을 이뤄냈다. 우수상은 임영윤, 조병언(3) 학우가 만든 'AR(컨텐츠부문)'이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간호학과 김태희(3) 이경민 학우가 '쇼미더머니'로 특별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혁신사업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강의 참여를 계기로 개발하게 되었다며 해외 여행시 현지화폐와 한화를 신속히 비교해 준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타학과 학우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성서학과 「제 6 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

### 노예찬 학우(4) 1 등 입상

성서학과가 크리스천 데이를 기념해 주최한 「제 6 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가 31 일 오전 일립관 101 호에서 진행되었다.

신·구약 100 구절을 외워서 쓰는 예선 지필시험에는 140 여명의 학우가 참여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6 명이 결선 1 차 본선에 진출, 10 문제로 골든벨 과정을 가졌고 이어진 결선 2 차를 거쳐 합산 점수로 순위가 결정됐다.

노예찬 학우(4)가 1 등으로 영광을 차지하였고 박미례(4), 이동규(2) 학우는 나란히 2 등에 오르며 기쁨을 누렸다. 최재연(2), 한수진(2), 박예성(3) 학우가 3 등으로 입상했다.

1 등을 차지한 노예찬 학우는 "평상시 암송을 즐기는 편이다. 친구들과 암송을 반복 하였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성경암송대회 최종 본선에 오른 6 명의 수상자들은 30 만, 20 만, 10 만 마일리지가 각각 수여된다.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참 경건' 주제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 설교, '하나님을 아는 것이'



▲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가 개회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원종천 교수, 아신대) '제 74 차 정기논문발표회' 및 '제 7 차 국제학술대회'가 11 월 2 일 우리대학교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참 경건'(True Piety) 을 주제로 개회예배와 주제 강연 1, 2 그리고 10 개 분과별 주제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삼상 2:12~21)로 개회예배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제사장이란, 성결함과 경건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세워드려야 할 사명을 갖는다. 엘리의 아들들은 본분을 훼손하며 심각한 죄에 빠졌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따라 거룩함을 다해 극진히 섬겼다.

우리는 예배자이다. 복음의 감격이 영혼 속에 가득 담겨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다가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신앙에 의한 거룩한 실천과 행위가 죽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하며 이러한 리더십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정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 나라는 어느 때 보다 혼돈의 시대를 가고 있다.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인 복음주의신학회 교수님들이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지난 1981년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10개의 분과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매해 상하반기 '성경과 신학'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고 35 개교의 회원 대학의 소속 1,000 명의 교수와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학회 총무인 우리대학 강규성 교수가 전체를 코오디네이트 하였다. 이밖에 박태수(조직), 박성환(실천), 오윤선(상담) 교수가 분과별 주제 발표를 하였고, 김정원(구약), 최영태(윤리) 교수는 자유 발표에 각각 참여했다. 이날 230 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 경성교회, 사랑의 장학금 3백만 원

강 총장 설교, "듣는 일, 행하는 일"



▲ 박종걸 담임목사(왼쪽)가 강우정 총장에게 사랑의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성교회 (담임 박종걸 목사)가 27 일 성서대학교 주일예배를 갖고 사랑의 장학금 3백만 원을 강우정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박종걸 목사는 이 시대 귀한 소명자를 양육하는 한국성서대학교에 복음전도자 양육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을 담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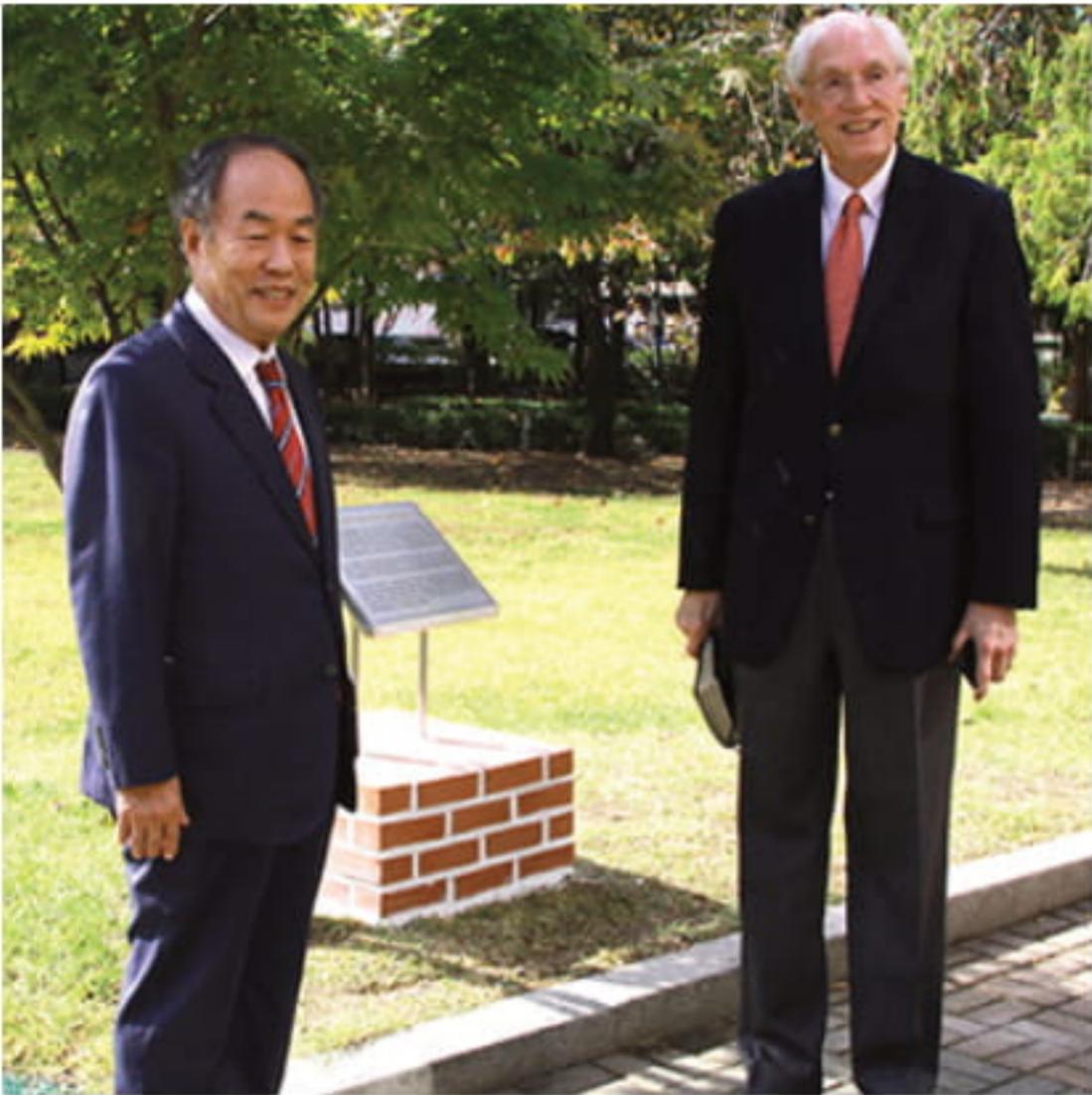
이에 앞서 강우정 총장은 성도들에게 '듣는 일, 행하는 일'(눅 6:46~49)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총장은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탁류가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새겨야 한다는 뜻이다. 반복해 듣고, 계속해서 듣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 대학은 경성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후원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다. 현금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전파에 필요한 주의 일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성서대학교 주일예배는 진행을 맡은 인도자 모두가 한국성서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돼 의미를 부여해줬다. 예배인도의 김윤정 집사(보육대학원 졸업), 기도 박기영 집사(보육대학원 졸업), 봉헌기도에 이지순 순장(사복학과 졸업)이 순서를 맡아 진행을 이끌었다.

경성교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대학에 1 억 1 천여만 원의 거금을 후원하며 주의 선한 동역자 관계로 유지해 오고 있다.

## Bob Jones University 총장 본교 방문

Bob Jones 3 세, "우리는 같은 식구다" 거듭 강조



▲ 강우정 총장과 Bob Jones 대학 총장인 Dr. Bob Jones 3 세가 Mrs. Betty Rae Cummings 추모식수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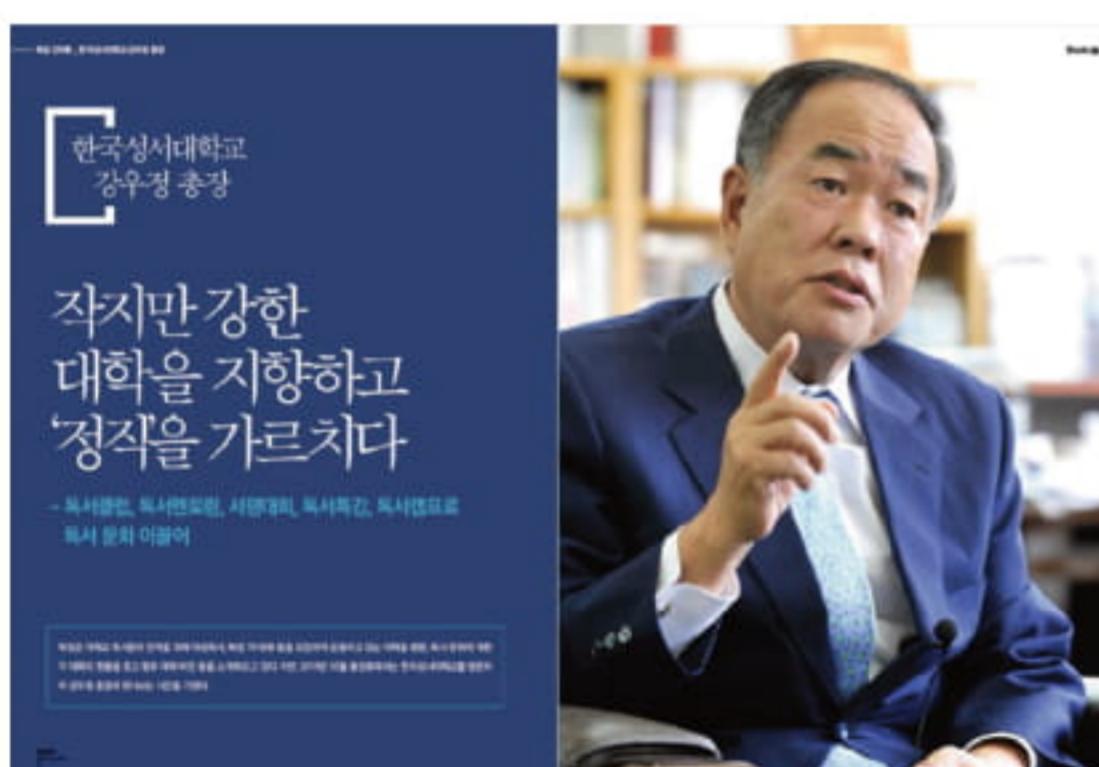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Bob Jones 대학 총장(Chancellor) Dr. Bob Jones 3 세가 29 일 채플에서 'Fulfilling the Reason You Are Here'( 약 2:14~18)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의역을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충족하라'이다.

Bob Jones 3 세 총장은 우리 모두는 구원을 통해 거듭나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주의 형상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명에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ob 총장은 채플 설교에 앞서 밀알관 2 층의 학교 역사관과 강태국 박사 기념관을 둘러보며 겸박한 삶과 신앙의 흔적에 대해 강 총장과 교감을 가졌다. 그는 “한국 성서대학의 설립자가 BJU 출신인 것은 알았지만 이 대학이 BJU 와 교육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신앙교육 훈련 등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 식구다 (kinship)”라는 말을 거듭했다. 곧이어 교내 잔디밭에 설치된 Mrs. Betty Rae Cummings 의 추모 식수를 찾았다. Mrs. Cummings 는 Bob Jones 대학 출신으로 남편 Malcolm Cummings 와 1960 년대 초기 한국에 들어와 우리대학의 교수로 학교발전과 복음전파에 헌신해 왔다.

## 생애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성경」

강우정 총장, 북집 (BookZip) 과 인터뷰



▲ 북집(BookZip)이 강 총장과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강우정 총장이 북집 (BookZip) 과 인터뷰를 가졌다. 북집은 대학교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 아침독서, 북집 지식 DB를 운영 중이다. 인터뷰는 대학 소개, 교육 이념과 목표,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등을 자료사진과 함께 10 면 분량으로 실었다.

강 총장은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세계관 형성이 가능한가!” “복잡다기해지는 이슈에 자신의 의사결정과 가치체계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생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는 『성경』을 꼽았다. 또한 이항녕의 『법철학개론』이 역사관과 세계관을 명쾌히 알게 해 주었고 강태국의 『나의증언』은 일관되게 살아온 하나님 일꾼의 전형을 각인시켜 줬다. Thomas Kuhn’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62)』 이 패러다임 (Paradigm)의 개념을, 슈테판 츠바이크의 『황혼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 있음을 밝혔다.

효율적 책읽기에 대해 “책을 펼쳐 저자의 약력으로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가늠한다. 다음은 목차와 결론을 보면 대략적인 아웃룩 (outlook) 이 잡혀져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서평도 먼저 챙겨 본다고 답했다.

북집은 격주간 On-Off 발행되고 있다. 독서문화 장려 외에 세계 트랜드 소개 및 분석, 미래예측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국내 신간 서적의 요약 외에도 최신 해외 경영서적의 프리뷰 제공 등으로 현대에 필요한 통찰력과 지식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www.bookzip.co.kr](http://www.bookzip.co.kr))

## 2019년도 장애학생 – 총장 간담회

강 총장, "보석과 같은 존재, 자긍심을 갖자"



▲ 장애학우 간담회에 참석자 전원이 손하트를 날리고 있다.



▲ 전재욱 (성서 4) 학우가 시험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년도 장애학생 – 총장 간담회가 30일 오후 3시 30분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장애학생 10명과 도우미 6명이 참석하였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형미 교수) 김병수 대리는 장애학우들이 요청한 시설 개선과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다. 갈멜관과 복음관 승강기는 교체되었고, 모리아 관 입구 케노피 설치, 복음관 101호실에 남학우통합휴게실도 개설 되었다고 말했다. 도우미를 신청하는 학우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도우미 사이버교육)은 모두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권면에 나선 강우정 총장은 장애학우들에게 2 가지를 명심해 달라고 하였다. 첫째는 장애학우의 요구는 항상 정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학교에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도 아니다. 여러분은 특수한 학생들이 아닌 그냥 똑같은 자식이다. 개선을 제안하고 학교가 이를 들어주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장애학우는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이며 본교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복음전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강한 자긍심을 가져라. 재학 중, 비장애인 학우들에게 '장애인의 사는 세상, 장애인이 보는 세상'을 교육할 책임도 있다.

다음은 참석 학우들의 발언 내용과 답변.

▲ 환경개선에 적극 임해줘 너무도 감사하다. 한 가지는 도서관 출입 시 원형 게이트에 부딪혀 불편하다.

–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시설개선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

▲ 장애우들 간에는 성적 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맞다는 의견과 상대평가가 더 좋다는 의견이 있다. 장애우들에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선택하게 할 수 있나? 영어의 경우 받아쓰기에 도움이 없어 아쉬웠다. 청각장애 학우도 있으니 배려해 주면 좋겠다.

– 이는 교수들과 논의한 후 답변을 하겠다. 영어교육센터에 관련 내용과 학우 배려를 적극 요청하겠다.

▲ 수업 과정에 장애학생을 지원해주는 목록 (평가 등)이 있어서 교수님들과 논의하였지만 실제로는 반영이 안 돼 아쉬웠다.

– 평가에 관해서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님들 가운데도 장애우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 평가와 관련해 센터 (950-4332)로 알려주면 조율을 거쳐 가능하도록 하겠다.

▲ 임지영 교수님이 자막 인강을 올려줘서 다시 들을 수 있어 좋다. 다른 과목도 가능하면 좋겠고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시험 답안을 쓰는데 장애 형편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 대학혁신사업에서 자막탑재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예산확보와 연계돼 시간이 필요하다. 시험시간 추가는 해당교수와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모색하겠다.

▲ 다음 수업에 대한 광고 (수업 과제 등) 전달이 안 돼 어려웠다. 교수님들이 시험 3~4 일 전 시험예상범위를 안내하는데 더 일찍 알려주면 좋겠다.

– 교수 개개인의 지도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견을 전하고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 장애학생 수업을 지원하는 도우미 학생들은 지각에 대한 예비시간이 있다는데 궁금하다. 장애인학우회가 생겼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이고 참여 독려와 임원 선출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 예비시간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학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1학기 때는 학교에서 시험시간 연장원과 그 이유를 적어 보내 달라고 email을 각자에게 보내줬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는 안 왔다. 기말고사부터 보내주길 바란다.

– 그렇게 하겠다.

## 총동문회 야유회 , 포천밀알훈련센터

이성화 총동문회장, 모교 발전에 힘과 정성을 다하자



▲ 예배를 마친 동문들이 교회예배당 앞에서 함께 하였다.

총동문회(회장 이성화 목사) 야유회가 지난 24 일 오후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야유회는 예배, 숲속산책 및 다과와 교제 순서로 이어졌다. 이성화(부천서문교회) 목사가 '형제가 연합하는 선'(시 133:1~3)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동문들의 "올바른 사명의식과 목회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은 설립자의 확고한 밀알정신의 가르침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받은 감사함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동문들이 결집해 모교 발전에 힘과 정성을 더하자.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난무중이다. 탁류의 시대에 결연히 대항하는 주의 사명자들 되자"고 말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지난날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의 힘이 더해져 현재 성서대학이 거듭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한반도 복음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모교를 위해 구별된 주의 사명자를 발굴하고 보내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동문들은 잣나무 숲길 산책 후 김영수기념관에서 다과를 나누고 경품추첨 등으로 선후배간 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밀알훈련센터 내 곳곳의 울창한 숲길과 산림을 보며 추억과 상념에 젖기도 하였다.

## 성서학회 '신학인의 밤'

김동관 목사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라"



▲ 김동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크리스천 데이에 맞춰 성서학회(학회장 김채현)가 주최한 '신학인의 밤'이 31일 오후 7 시 일립관 101 호에서 동문선배와 재학생 150 여명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서 총동문회 부회장 김동관 목사(29회, 수원안디옥 교회 담임)가 '큰 일을 하려면'(사 6:1~8)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립자의 이념과 사상이 아직도 가슴속에 살아있다. KBU 구성원으로서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큰 일을 하는 사명자로 3 가지를 주문하였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성결한 사명자의 조건인 철저한 회개의 터널 통과가 필요하다. 끝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시대 부름에 응답하는 밀알의 일꾼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2부 나눔에서는 오프닝과 함께 1학년 후배들 2팀이 찬양과 율동으로 현장 분위기를 서서히 예열시켜주었다. 나눔 시간에는 '나 때는 말이야'의 주제로 진행됐다. 동문선배와 재학생이 각자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느낀 소감과 추억이 깃든 에피소드로 서로의 간격을 허물어갔다.

김지연(4) 학우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KBU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 이 동행해 주셔서 가능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어려웠는데 이 또한 감당케 해주셨다. 부족한 영훈이 주안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도록 겸손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간증해 주었다.

김채현 학회장은 '신학인의 밤'이 동문과 재학생 모두에게 소속감 확인과 선후배간 끈끈한 결속력을 각인시켜줬다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성서학회가 마련한 이번 '신학인의 밤'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뉴트로 스타일을 포스터에 재현했으며 '나 때는 말이야'의 타이틀로 선배들의 학창시절까지 되살려줘 호평을 받았다.



총장의 편지  
총장 강우정



직원 컬럼  
이상일 계장(시설관리팀)

## 2019 체육대회 유감(有感)

예음총학이 주최한 2019년 크리스천데이 체육대회는 재미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총학의 준비와 진행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훌륭하였습니다. 학우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마지막 한강공원의 쓰레기 처리까지 말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화장실의 단골 경구인 「성서인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김대진 회장에게 물어보니 당초 계약상 뒤처리는 의무사항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어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야지 ...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학우들은 '범생'인줄만 알았는데 각종 경기에서는 진짜 fighter들이었습니다. 피구에서 여 학우들이 날리는 공은 날카롭기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의 승부욕이 번뜩이었습니다. 농구 경기에 서 임덕열 학우 (사복 2)의 움직임은 경이로웠습니다. 왼쪽 손 절단으로 오른손으로만 공을 다루어야 하는 장애우이지만 농구기량이나 투자는 포인트 가드로서 다른 동료선수들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타고난 리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권위는 엄정하였습니다. 심판들도 선수들의 항의를 귀 담아 듣고 판정의 잘못을 군더더기 없이 시정하는 용기도 보여 주었습니다. 응원은 일사분란하지는 않았지만 북과 팽과리까지 동원,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습니다. 멋진 장면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 본 보람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을 깊숙이 의자에 파묻고 세상을 다 얻은 만족감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좋은 날씨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준 모든 학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학우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교수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학우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함께 식사하면서 기쁨은 축하해주고 슬픔은 위로해 주며 관계를 이어간다. 친구들과의 자리라면 공감의 폭도 깊어지고 관계의 행복도 그만큼 상승하는 걸 느낀다.

얼마 전 27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만났다. 만났던 세월보다 보지 못했던 시간이 더 길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중학교 시절로 되돌아갔다. 오래전 순수한 중학생에서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떤 친구는 목사가, 다른 친구는 학원 원장에, 한 친구는 가게 사장님 이 돼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실컷 웃고 떠들었다. 서로서로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느끼던 행복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수록 삶의 평안과 행복지수도 올라간다. 우린 피조물이고 그 분이야말로 최고로 완벽하고 흠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라면 어떨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관계해 교제하면서 와 닿는 즐거움은 어떤 에너지보다 큰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관계와 오해로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린 상처를 크게 받는다. 심하면 사람과 관계하는 자체마저도 거부하게 된다.

인간은 흄이 많고 부족한 존재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속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의 길을 주관하고 운행시켜 가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을이 지나고 있다. 이 풍요의 계절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함께 공유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교수 컬럼**  
현우석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외래교수 컬럼**  
서민규 교수(한반도 정치학)

## 그리운 어머니

2년 전부터 어머니와 만나고 헤어질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다.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면 어머니는 항상 먼저 가라고 하시면서 뒷모습을 잘 보여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뒤돌아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까지 바라보곤 했다.

지난 6월 2일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 어머니의 지나온 모습을 되새겨 보았다. 성경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야로 묵상하던 어머니였다. 독서, 산책, 클래식 음악 감상을 좋아했고 새벽 4시 기상해 산에 다녀오신 후 도시락 8개(8남매)를 손수 싸 주신 어머니였다. 어떤 일을 부탁드리면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었고 속초 중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할 때 국문학을 전공하셨지만 국어, 영어, 음악 등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어머니(제자 한 분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되심). 마지막까지 왕성교회 영어 예배부를 섬기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그들 중에 필리핀 제자 한 분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대진대학교 외래 교수가 되었다. 연세가 88세였음에도 어린이, 청년 등에게 존칭어를 사용했으며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경비원에게도 항상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 하시던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뵙고 싶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8월 15일 새벽녘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선명하게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자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계 21:11)"와 같은 빛이 어머니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린다.

## 한반도의 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욜 2:28)"

북핵문제, 한·일 갈등, 조국사태 등 일련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일들로 '21 세기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자문(自問)하게 됩니다. 한민족이었지만 분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남쪽(대한민국)에서는 남남갈등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양분시켰던 '조국사태'도 궁극적으로는 분단의 영향, 즉 '보수(우파)' vs. '진보(좌파)'라는 틀 속에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분단의 고착화가 견고한 진(陣)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자신을 영, 즉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28절)."장래 일을 말할 것"이란 뜻의 예언은 히브리어(나바)로 '황홀경에 빠져 있다', '예언자로 행동한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 즉 다음세대들이 예언자로서 자신 스스로가 말(예언)한 것을 성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히브리어(할람)인데 이것은 '꿈꾸는 자가 되다', '마음에 들다', '치료하다'는 뜻으로 늙은이, 즉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 대해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치료(실천)하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보는 것"이란 히브리어(하자이온)으로 '하나님의 계시', '환상', 즉 비전인데, 이것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 하루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나, 민족의 고난, 국가의 어려운 상황, 즉 분단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처지와 상황에 맞게 삶의 자리에서 예언과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임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 빈 자리

지난 열흘 동안 아들을 찾아 시애틀에 간 아내의 빈자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 때문에 외국 나간 적은 있었지만 아내가 혼자 오랜 시간 나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붙여 놓은 순서로 국과 반찬 꺼내 먹는 수고로움이야 당연한 것이어서 수고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배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공항버스를 기다리는 아내 눈에서 두고 가는 남편 걱정과 새로 만날 아들에 대한 반가움이 교차되는 걸 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잘 먹고 있을 테니까? 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시애틀 구경도 잘 하고 ...” 보내고 뒤돌아 선 제 마음에 봄날 나비처럼 사뿐히 찾아 든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목양실에 늦게 있어도 언제 올 것인지 묻는 전화도 없고 언제 간다고 알려야 할 의무감도 없이 지내는 저를 봅니다. 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잠 안자서 어쩌려 하느냐는 아내의 경고도 없습니다. 반바지 차림의 운동화와 이어폰 끼고 걸으며 당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자리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도 되는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겁니다.

방송국 녹화 마치고 오는 길에 강변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서강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도 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교역자들과 북서울미술관을 들러보고 비오는 동일로도 바라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웬지 혼자 있게 된 자의 여유로 치부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거북해지는 건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먼저 가고 가장 힘든 게 아무도 없는 집에 불 켜는 일입니다.” 20년 전 부인을 떠나보낸 분이 들려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문 열고 들어서면 켜지는 현관의 불은 거실 넘어 불 꺼진 안방의 어둠만 더 짙게 만들어 줄 뿐이었습니다. 컴컴한 안방 불들과 이제 왔어요! 하고 불러줄 목소리가 없는 집은 제가 느낀 자유를 잡아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이 있다가 홀로 되신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열흘이 아니고 평생 지내야 한다면 ...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나비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아내의 소리가 다시 집 안에서 들립니다. 예보 카톡 좀 보세요. 몇 시에 출발해요? 늦으시면 안 돼요 .... 예 사모님 ... 이제 불 꺼진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행복한데 나비가 날아간 방향을 보게 되는 건 웬일인지 ....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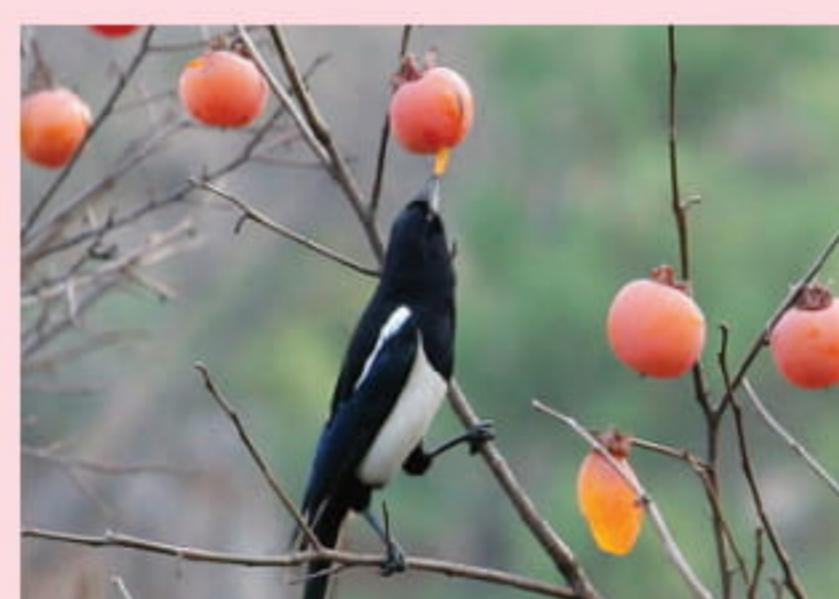
### 겨울 까치집 \_ 박행신

가슴이 따뜻한 나뭇가지들만  
모았나 보다

저리 승승 구멍 뚫렸는데도  
저리 풀풀 눈보라 날리는데도

들어서면 따뜻한 가슴들이  
먼저 받아주나 보다

겨울 까치집의 나뭇가지들은  
꺾여서도 한여름의 햇살만을  
꼬옥 간직하고 있었나 보다



<http://cafe.daum.net/ds42m/FKs/559>

까치는 2~3월경에 미루나무 버즘나무 감나무 등에 둉지를 트는데, 보통 한 나무에 한 개의 둉지를 짓는다. 둉지는 나뭇가지 마른 풀 지푸라기 등을 촘촘하게 엮어 만드는데 찬바람도 비도 천적도 감히 기웃거릴 수가 없다.

새끼 사랑이 지극한 엄마 까치, 새끼와 아내를 지키는 아빠 까치, 까치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나뭇가지 둉지. 그 따뜻한 둉지 안에서 계절이 쑥쑥 자라간다.

11월의 새파란 하늘 끝에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마음 착한 이들이 남겨놓은 사랑 덕에 먹거리도 풍성하고, 한여름의 햇살을 간직한 나뭇가지 덕에 둉지 안도 따뜻하다. 이래저래 이 긴 겨울은 훈훈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성서대학교 잔디밭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준비중이다.

## 노원구와 함께한 '가족의 날'

대학어린이집은 21 일 '가족의 날' 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유아반 가족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인근 당현천과 근린공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잔디밭에서 다양한 코스게임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 시작 후 각 반 유아들은 준비한 노래와 율동을 뽐내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 이후 연령별로 팀을 나눠 정해진 장소 3 곳을 도는 게임과 끝난 후 과일 주스와 떡꼬치를 나누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는 학부모와 한 팀이 되어 하는 줄다리기였다. 이 게임을 통해 가슴속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날렸다. 학부모들은 동네에 있는 당현천과 근린공원 까지 연계된 활동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외에 여러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갈 예정이다. [ 믿음반 교사 임희주 ]



▲ 김장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 월계희망마을공동체 김장기금 마련 바자회

지난 2 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월계희망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김장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바자회는 올해 7 번째 진행되었는데 이번 바자회는 주민들의 주도로 기획, 진행되어 다른 바자회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행사에서는 족발, 부침개, 천연비누, 천연수세미, 칼국수면, 아메리카노와 각종 의류, 추억의 종이 뽑기 등이 마련됐다. 다양한 물품 판매와 이벤트로 지역 주민들은 바자회 자체를 즐겁게 참여하였다. 특히 이날 바자회 운영 목적이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 전액은 김장기금으로 후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지역주민 연합모임인 월계희망마을공동체는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300 여만 원을 후원했다. [ 지역사회조직팀 대리 임재택 ]



▲ 헬로우 브레드 현장체험장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헬로우 브레드'

지난 17 일 북서울 꿈의숲, 상상톡톡 미술관에서 진행된 '헬로우 브레드' 현장체험에 유아 58 명이 다녀왔다.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제빵과 밀가루 슬라임 체험 등을 경험케 했다. 프로그램은 '풍년빵집' 공연과 '풍년제빵소'에서 빵 만들기가 이어졌고 '신비한 거인의 오곡나라'에서는 곡식 오감놀이와 '슬라임 체험놀이' 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공연을 보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단팥빵' 과 '소보로' 빵을 만들어야 한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여러 가지 곡식을 오감으로 탐색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슬라임 카페'에서는 예쁜 색깔 밀가루 반죽에 가지각색의 오곡을 넣어 나만의 슬라임도 완성하였다. 이날 체험으로 빵을 가족과 나누며 유대감까지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백합반 교사 여미희 ]



▲ 코코스 성가대와 카르포스 성가대가 연합해 찬양하고 있다.

## 추수감사주일

10 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2 부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하였다.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라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성례식을 통해 성례의 소중한 교훈을 배우는 예배가 되었다. 또한, 예배 위원으로 청소년 1 부, 2 부, 청년부가 담당해 진행하였고, 코코스 성가대와 카르포스 성가대의 연합찬양이 함께 이어졌다.

오후에는 찬양팀 주도로 '보이는 라디오'를 선보였다. 성도들의 감사 사연과 찬양 신청곡을 찬양팀과 안수집사회, 라함 어린이들이 찬양하면서 성도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감사예물 (과일, 채소, 쌀 등)을 드려 지역사회 (한국성서대학교 기숙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남사랑 요양원, 장애인 11 가정 등)에 나누었다. [ 목사 서 육 ]



▲ 유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즐기고 있다.

## 국립한글박물관 체험

지난 8일 만 4세 유아들은 수료여행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다녀왔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한글의 모든 것에 대한 유래와 관련된 진귀한 자료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한글자음과 모음스티커를 모아서 원하는 글자 만들기가 묘한 즐거움을 안겼다. 목판 인쇄 체험은 글자가 종이에 찍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었다. 유아들은 체험을 통해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박물관에서의 점심식사와 술래잡기, 가위바위보게임 등 다양한 놀이도 즐거움을 안겼다.

수료여행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많이 컸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쉽고 가슴이 먹먹하다.”라며 교사들의 수고와 얼마 남지 않은 수료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 푸른반 교사 이예은 ]



▲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육아법이 교육중이다.

## 부모가 알아야 할 행복한 육아법

노원구가 주최하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는 부모역량강화 교육 「부모가 알아야 할 행복한 육아법」이 관내 학부모 4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전, 오후 2회기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행복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훈육 노하우'를 주제로 한국성서대학교 강정원 교수가 진행해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오후에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녀 성교육 하는 법'을 주제로 관계교육연구소 손경이 대표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그동안 궁금해 하고 알고 싶던 영역에 대해 실용적이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었다. 교육이 양육기술 증진과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행복한 육아하기를 위한 원동력 향상 시간이 되었다. [ 보육전문요원 임지혜 ]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나 가족의 날'

지난 12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부모참여행사로 '보나 가족의 날'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온 가족구성원들이 다양한 신체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가족과 어린이집이 화합을 이루는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행사에는 재원생 영유아 50 가정이 참석, 파도타기, 기마전, 친구야 도와줘, 줄다리기, 신발 공 던지기 등 다양한 게임과 체육활동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에는 재원생 영유아 부모님 외에 형제, 조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여 연령별과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기는 체육대회가 되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 좋았다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 해맑은반 교사 장혜진 ]

## 소방관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 교육

지난 22일 (화) 노원구 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두 명의 학부모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소방안전 교육은 아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서와 소방관 역할에 대해서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내용은 소방 대피훈련, 소화기 사용방법, 비상구 찾는 요령 등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은 소화기 사용법에 흥미를 내보였고 건물마다 표시된 비상구 표식 기억을 떠올리며 대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참여한 유아들은 "소방관이 될래요", "멋져요" 라며 안전교육효과를 표현해 주었다. 교사들도 화재사고에 "신속 안전한 행동요령을 인식시켜준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 즐거운반 교사 김한솔 ]

## 수학의 계절

지난 2일 만 2~5세까지의 영유아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중산농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수학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고구마와 땅콩을 직접 수확하는 경험을 하였다. 수확한 고구마와 땅콩을 들고 "가족들한테 나눠 주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유아들은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트랙터에 올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타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수학체험 외에도 인형극과 마술쇼까지 관람한 후 맛있는 점심식사를 나누며 친구들과 자연이 주는 결실의 기쁨도 맛보았다.

학부모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따 온 거라 의미가 크다"며 현장학습 체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 교사 변윤영 ]



▲ 보나 가족의 날 체육대회에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 학부모 소방관이 소방에 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무어린이집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9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1,450만원(운영)	KRX국민행복재단	15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21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김학진 (동문)	50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부설기관	수원교회	평원교회
1구좌 권슬기 문성령 오채엽 윤헤자 이은실 이환희 정금숙 진병원 홍성대	2구좌 한정숙 10구좌 조현진 20구좌 이강동	1구좌 강선애 1구좌 김상오 1구좌 손미희 2구좌 정우진	1구좌 성경아 일반 1구좌 류찬성 심재순 장지화 단체 및 기관 20구좌 (주)소원기건
2구좌 김명주 이구영 3구좌 민승철	1구좌 허성보 서문교회		
교직원 및 가족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경순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송명훈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자은 오세천 오은희 오채엽 용아름 우승연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보아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정 이윤주 이은실 이은영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지은 이진경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이희윤 인자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희남 전다현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주민자 주진우 지영환 진병원 진태임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상도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이예람 2만원	전택복 정옥순 정주영 조성진 최선옥 최수지 최예본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황보혜영 3만원
5천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이아람 정다운	강나경 구연민 국소영 김기옥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자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승 박재홍 백연옥 성남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보아 유순희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4만원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영규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혜 김다슬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웅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선식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준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우 박명우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김연진 김종남 김준오 김지원 김진경 김혜선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현주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병철 이부호 전은진 정예나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흥현숙 6만원	
2만원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자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승 박재홍 백연옥 성남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보아 유순희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7만원	
3만원		강경옥 김동관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장명현 정 완 유선미	
4만원		김희태 이례장학 100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11만원			
100만원			

기부자 명단			
500만원 <b>재학생 및 가족</b>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은이 김혜미 박기영 박대중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성인선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소연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이해진 임동화 장명철 전계화 전명자 정창금 최진석	2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호한나 3만원 전안나 흥옥주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윤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지혜 임희주 장수진 장지영 정미옥 탁지혜 한승이 4만원 박미선 5만원 강진아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이인경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정나나 차 건 25만원 신영자	2만5천원 정명수 조성민 최영태 하명란 권경만 김동준 김미선 김병철 백순옥 유형창 이윤봉 전광심 3만원 김동수 김영현 김원태 박경상 백향원 서 욱 유은주 이숙영 이은실 최대만 최미숙 4만원 김민자 김일선 신재은 양태환 이승림 이정임 5만원 권태완 길용희 박세건 조혜경 최정권 한진호 6만원 최순남 9만원 김웅기 10만원 김동선 1,210만원 성서대학교회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현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해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셀러듀
2만원 김명숙 김애라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엄마자 오옥경 이영림 전옥순 전용숙 최혜진 흥은선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무 명 서병준 이수진 이일신 장병길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원 박지성	4만원 정주아 정형채		
5만원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김형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한현숙		
<b>교직원 및 가족</b> 1만원 강신애 고아라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영직 김유진 김은실 김지성 김창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양윤식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상일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정은상 정지용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진달래 하하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b>동광교회</b>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승 유성현 이호섭 임현필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영은 한상만 한정숙	<b>밀알교회</b> 1만원 서효정		
3만원 김덕원 김미숙 김성호 김은영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추연진 한요계벗	<b>비전교회</b> 3만원 장석원		
5만원 구성빈 구성연 권순범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장정순 최사랑	<b>삼일성서교회</b> 1만원 김초룡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10만원 삼일성서교회		
6만원 이성아 임환석 9만원 권경만	<b>서문교회</b>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10만원 강정원 강혜민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박성환 안정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b>석계제일교회</b> 1만원 채용문		
11만원 김중완 최지은 100달러 강일로 12만원 김웅기 13만원 강규성 한진호 15만원 김은호 김희수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강동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임지영 최선희 1,450만원 강우정.강 진	<b>성서대학교회</b> 5천원 곽규상 박선구 이상록 정현숙 정희선 최진두 황성모 1만원 강경혜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김겸일 김다혜 김병열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성진 김순자 김애숙 김윤선 김인영 김주혜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향순 김혜옥 김희자 류 강 박영신 박용숙 박이숙 박인숙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방미경 성윤선 손진희 신양금 신인옥 심애경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용정자 유상호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대영 이대한 이봉호 이선정 이영진 이영희 이임자 이정숙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장근문 전옥순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정승연 조건희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지선 조현진 최명순 최용석 한충현 허진순 홍기순 황서린 1만5천원 김은미 박혜영 2만원 강규성 강유진 권정숙 김온순 김정숙 박온유 박정하 변경선 오경모 유정선 윤영원 정갑순		
<b>부설기관</b>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b>수원교회</b>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b>이례교회</b> 1만원 손미희 이채은		
	<b>장자교회</b>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b>주향교회</b>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b>중앙성서교회</b>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준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김종구 한금례 권사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해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b>퇴계원제일교회</b>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b>평원교회</b> 1만원 성경아		
	<b>평화교회</b> 10만원 평화교회		
	<b>풍암교회</b> 1만원 유금례 윤은정		
	<b>함평대동교회</b> 1만원 김희경		
	<b>효성교회</b>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효숙 2만원 김양례		
	<b>일반</b>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군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b>소계(20190921~20191020)</b> 66,235,520		
	<b>누계(20190301~20191020)</b> 577,764,721		